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団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특강」 생약재 안정생산의 문제점과 대책 3면
- 재배고실(쇠무름) 4면
- 「이사람」 구기자주 제조 기능 보유자 임영순씨 :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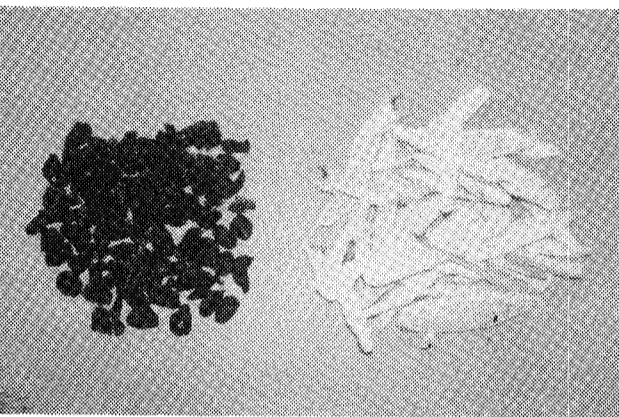
수입산 육안으로는 식별 불가능 국산둔갑우렁, 소비자피해 예상

최근 경동약령시장내에 밀수 거피회기가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퍼

지면서 한약업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산과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 가공된 수입 활기가 현재 경동약령시장내에서 국산으로 둔갑,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중국산 두충, 산수유도 상당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불법거래되고 있는 이들 밀수품은 활기 두충이 6천5백원, 산수유는 3천5백원 선으로 국내산 1만2천원, 8천원의 절반사세. 그런데도 소비자들에게는 밀수품임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국내산과 동일하게 판매함으로써 폭리까지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수행기나 된다”



◇경동약령시장내에서 물밀 거래되고 있다는 중국산 거피활기(오른쪽)와 산수유(왼쪽).

산약초 채취나들이

21일, 경기도 양평소재 중미산서

산에 올라 맑은 공기도 마시고 자연산 무공해 청정약초도 캐 볼 수 있다. 산단법인 한약생약협회는 21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중미산에서 약령지(산약초) 채취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미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약령지(산약초) 채취나들이는 산단법인 한약생약협회가 주관하며, 참가비는 교통비와 점심비를 포함한 1만5천 원이다.

한의사 무료 진료 국산약재 5% 할인

5월 10일, 국산한약재 5% 할인 행사. 약재상설매장을 찾은 모든 소비자에게 한의사 무료진료를 제공한다.

상설매장개장 1주년 기념

국산약재를 5% 할인 판매한다. 또 하수도 국수면, 마(산약) 냉면도 무료로 나눠주고, 쑥, 당귀, 마(산약), 솔잎 등을 넣어 만든 약탕도 맛볼 수 있다.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및 채취 행사”

맑은 자연속에서 여가도 즐기고 무공해 산약초도 채취하는 이번 행사에 소비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소재 중미산
- 일 시 : 1996년 5월 21일(화요일)
- 채취약초 : 산더덕(사삼), 잔대(제리), 두릅(독활), 산마(생산약), 산도라지(길경), 삼주삭 및 뿌리(백출) 등
- 참가비 : 1만5천원(중식, 교통비 포함)
- 출발장소 : 미도파 청량리점 광장(1호선 제기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967-8133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 생약살리기 운동 본부